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¹⁾

최 정 미* · 오 선 영**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 인천국공립 고잔어린이집 원장**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with working
mothers depending on the type of after school care

Choi, Jung-Mi* · Oh, Sun-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GoJan Child Day Care Center***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after school, focusing on 437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with working parent. This investigation also analyzed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forms of after school child-care and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lf-care children took up 42.3% as the result of the survey on living conditions after school of lower-grade children. It showed that children under the condition of self-caring for more than four hours a day on the average took up 2/3 of the child group.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of children secondary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 of anxiety with respect to children's genders, parental occupations in the area maternal educational levels. Third, the results of the findings on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se children depending on the form of after school hour child care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neliness and self-perceives competence felt by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 being), 방과후 보호(after school care)

1) 교신저자 : Choi, Jung Mi, 419 Sungnamri Muaneup Muangun Chonnam 534-701 The Republic of Korea
Tel : 062-530-1317 Fax : 062-530-1329 E-mail : shuma523@hanmail.net

I. 서 론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통계청, 2001). 더욱이 기혼 여성 중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학령기 자녀(6-12세)를 둔 취업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이들 취업모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자녀양육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김경혜, 1998; 임신심, 1998) 학령전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을 둔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에 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취업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이제 취업모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라는 틀을 벗어나 가족과 학교,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의 접근을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성인의 적절한 돌봄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있어 방과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비취업모 자녀들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방과후에 경험하게 되는 보호형태에 따른 경험 즉 방과후 어떻게 보호받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였는가는 이후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Posner & Vandell, 1994) 방과 후 보호형태와 취업모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서 방과후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몇몇 연구(옥경희 등, 2001; 장영은, 1998)들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자기보호 아동에 국한시켰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보아 줄 성인이 없이 아동 혼자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생활을

하는 자기보호 뿐만 아니라 취업한 부모를 대신한 대리양육자에 의해 돌보아지는 성인보호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한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해주는 방과후 시설보호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유능감, 불안 등과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복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란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과, 부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적 복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선호되는 추세이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로 자아유능감, 지지감, 향상감 등이 포함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이 포함된다(장영은, 1998; 최진원, 2001; Cowen, 1994). 특히 자아유능감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발달특성상 불안,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심리적 복지 중 긍정적 측면으로는 자아유능감을, 부정적 측면으로 불안, 외로움을 선정하여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 및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주현, 1995;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1; 장영은, 1998).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의 경우 연령이 어릴 뿐만 아니라 고학년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고(장영은, 1998; Vandell & Corasanti, 1988), 학원 수강이 끝난 이후의 시간에도 여전히 혼자 지내야 하는 아동은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과 두려움, 소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은 낮은데 비해 부정적인 측면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현, 1995;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한명희, 1991; Dichtel, 1986; Posner & Vandell, 1994; Zill, 1983).

이렇듯 방과후 보호형태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방과 후 보호형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옥경희 등, 2001; 이남기, 박정희, 1995; 최경순 등, 1996; Halpern, 1992; Harter, 1982; Long & Long, 1982)임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과후 시설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및 성인보호)에 따른 생활실태는 어떠한

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별, 학년,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성인보호, 방과후 시설보호)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취업모 자녀 43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개교와 방과후 시설 6곳에서 대상아동을 표집하였다. 보호형태별로는 자기보호 아동 142명, 성인보호아동

187명, 방과 후 시설보호²⁾ 아동 108명으로 선정되었고, 총 437명의 아동이 작성한 질문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분석

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

불안 척도는 Reynolds & Richmond(1978)의 아동용 불안표출 개정판검사(Revised Children's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37)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아	230(52.6)	학 년	2학년	207(47.4)
	여 아	207(47.4)		3학년	230(52.6)
부학력	중졸 이하	22(5.0)	모학력	중졸 이하	39(8.9)
	고 졸	238(54.5)		고 졸	262(60.0)
	대졸 이상	177(40.5)		대졸 이상	136(31.1)
부직업	단순노동직	19(4.3)	모직업	단순노동직	130(29.7)
	피고용 기술직	62(14.2)		피고용 기술직	40(9.2)
	자영상공업	93(21.3)		자영상공업	150(34.3)
	사무직 및 기술직	246(56.3)		사무직 및 기술직	99(22.7)
	전문직 및 관리직	17(3.9)		전문직 및 관리직	18(4.1)

2) 초등학교에 다니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취업한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일정 시설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완기능으로 정서적·교육적 격려와 지원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서비스

Manifest Anxiety Scales ; RCMAS)를 기초로 최진숙, 조수철(199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는 Asher, Hymel & Renshaw(1984)의 아동용 외로움 척도(Loneliness Questionnaire)와 장영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9문항을 외로움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자아유능감 척도는 Hater(1982)의 아동용 유능감 지각검사(The Perceived Competences Scales for Children ; PCSC)를 기초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총 15문항(인지: 4문항, 사회성: 3문항, 신체: 4문항, 자신에 대한 일반적 지각: 4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2) 방과후 생활실태 및 보호형태에 관한 조사도구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는 한명희(1991)의 방과 후 실태조사 파악을 위한 질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과후 보호형태는 정규적인 학교수업이 끝난 후 아동이 집이나 시설에서 받는 보호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를 받는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방과후 자기보호, 성인보호, 방과 후 시설보호로 분류하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소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집에 있나요?', '부모님이

귀가하실 때까지 하루에 몇 시간정도 혼자 지내나요?' 등 방과 후 보호형태를 묻는 2문항과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시설에서 거의 생활하는 아동이므로 질문지 내에 방과후 생활실태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고, 질문지를 구성할 때 자기보호 및 성인보호 아동의 질문지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질문지를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Cronbach's α ,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추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보호형태에 따른 방과후 아동의 생활실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아동 142명(32.5%), 성인보호 아동 187명(42.8%),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 108명(24.7%)으로 분포되는데, 여기서는 방과후의 생활이 일정하게 짜여져 있는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을 제외한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생활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1)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방과 후 아동의 시간 활용실태를 다중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방과후 하는 일은 주로 '집에 돌아와서 지낸다'가 3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방형으로 집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하는 일을 직접 적게 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숙제와 독서를 하며, 비디오테이프를

<표 2> 방과 후 아동의 시간 활용실태

N (%)

변 인	구 분	자기보호 아동	성인보호 아동
학교가	집에서 지낸다	92 (35.9)	78 (27.7)
	학원에 간다	79 (30.9)	115 (40.8)
끝나고	친구집에 간다	26 (10.2)	35 (12.4)
방과후에 하는 일	놀이터에 가서 논다	24 (9.4)	24 (8.5)
	이웃집에 간다	17 (6.6)	5 (1.8)
	만화방이나 PC방에 간다	18 (7.0)	10 (8.8)
합 계		256 (100.0)	282(100.0)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방과후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놔두고 학원을 가는 경우가 30.9%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친구집(10.2%)과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9.4%), '만화방이나 PC방에 간다'와 '이웃집에 간다'가 각각 7.0%와 6.6%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방과후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학원에 간다'가 4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집에 돌아와서 지낸다'가 27.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응답에 있어서, 자기보호 아동과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서 주로 숙제와 독서를 하며, 집안 일을 돕거나, 비디오테이프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친구집에 간다(12.4%)'와 '만화방이나 PC방에 간다(8.8%)', '놀이터에 가서 논다(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는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의 통제하에 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많고, 방과후 마땅히 돌보아 줄 성인이 없는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는 자기보호 아동에 대해 방과후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방과후 아동의 귀가시 기분상태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이 평상시 방과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분을 물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인보호 아동은 귀가시 '기분이 좋은 편이다'에 61%로 응답한 반면, 자기보호 아동은 31.0%만

이 '기분이 좋은 편이다'라고 하여 성인보호 아동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허전하고 쓸쓸하다'에 18.7%, '집에 들어가기 싫다'에 2.7%로 응답한 반면 자기보호 아동은 '허전하고 쓸쓸하다'에 31.7%, '집에 들어가기 싫다'에 9.2%로 응답하였다.

결국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방과후 집에 돌아왔을 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무섭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등 불안한 정서상태를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불안, 공포, 외로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장영은, 1998; 한명희, 1991; Dichtel, 1986; Long & Long, 1981; Zill, 1983)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과 후에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의 학원 이용실태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의 학원 이용실태는 <표 4>와 같다.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수를 살펴 본 결과 두 집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보호 아동의 58.5%가 1~2군데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군데 이상은 13.4%로 나타난 반면, 성인보호 아동은 1~2군데의 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57.6%로 나타났으며, 4군데 이상이 16.6%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알아 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보호 아동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표 3> 방과 후 아동의 귀가시 기분상태

		N (%)		
변인	구분	자기보호 아동	성인보호 아동	계
귀가시 기분 상태	허전하고 쓸쓸하다	45 (31.7)	35 (18.7)	80 (24.3)
	집에 들어가기 싫다	13 (9.2)	5 (2.7)	18 (5.5)
	조용해서 좋다	25 (17.6)	20 (10.7)	45 (13.7)
	매우 으스스하고 무섭다	15 (10.6)	13 (7.0)	28 (8.5)
	기분이 매우 좋거나 좋은편	44 (31.0)	114 (61.0)	158 (48.0)
합 계		142 (43.2)	187 (56.8)	329 (100.0)
		$\chi^2 = 30.940^{***}$	df = 4	

***p<.001

〈표 4〉 방과 후 아동의 학원 이용실태

N (%)

변 인	구 분	자기보호 아동	성인보호 아동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수	1군데	42 (29.6)	47 (25.1)
	2군데	41 (28.9)	60 (32.5)
	3군데	24 (16.9)	34 (18.2)
	4군데 이상	19 (13.4)	31 (16.6)
	아무곳도 다니지 않는다	16 (11.3)	15 (8.0)
$\chi^2 = 2.381$		df = 4	
아동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2시간 정도	42(29.6)	93(49.7)
	2~3시간 정도	41(28.9)	34(18.2)
	3~4시간 정도	24(16.9)	25(13.4)
	4시간 이상	19(13.3)	20(10.7)
	아무곳도 다니지 않는다	16(11.3)	15(8.0)
$\chi^2 = 6.060$		df = 4	
합 계		142(100.0)	187(100.0)

정도(29.6%)와 2~3시간정도(28.9%)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2시간 정도(49.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 정도(18.2%)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들이 방과후 보호형태와 상관없이 1~2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3시간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한 연구결과는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에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 선행 연구결과와 비슷함을 볼 수 있다(권민균, 2001; 이재연, 강성희, 1992; 최영애, 1998).

4) 자기보호 아동의 귀가시 가족유무와 자기보호 시간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의 귀가시 가족유무와 자기보호 시간을 알아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방과후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유무에 관해 살펴보면, 자기보호 아동의 59.9%가 아무도 없

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아래 동생이 있는 경우가 23.9%, 12세 이하의 손위형제가 있는 경우가 16.2%였다. 이것은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귀가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어야 할 동생이 있는 경우가 23.9%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12세 이하의 형제가 있는 경우도 16.2%가 되며, 혼자 있는 경우도 59.9%되는 것을 볼 때, 아직 자기보호를 할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저학년 아동이 혼자 있음으로 해서 직면할 수 있는 안전과 보호 및 정서적인 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

자기보호 아동이 하루에 홀로 지내는 시간을 살펴 보면 4시간 이상이 69%로 나타났으며 3~4시간 정도가 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인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학년보다 짧기 때문에 자기보호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인 (1995)은 1~2학년은 평균 12시 10분, 3~4학년은

〈표 5〉 자기보호 아동의 귀가시 가족유무 및 자기보호 시간

변 인	구 분	N (%)
방과 후 아동 귀가시 가족유무	아무도 없다(혼자 문을 열고 들어간다)	85 (59.9)
	나보다 어린 동생이 있다	34 (23.9)
	12세 이하 손위형제가 있다	23 (16.2)
자기보호 시간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44 (31.0)
	4시간 이상	98 (69.0)
합 계		142 (100.0)

〈표 6〉 자기보호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어려웠던 상황

변 인	구 분	N (%)
자기보호 상태에서 가 장 힘 들었 던 상 황	갑자기 몸이 아플 때	71 (50.0)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31 (21.8)
	갑자기 필요한 것을 찾거나 사야 할 때	21 (14.8)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울 때	8 (5.6)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6 (4.2)
	나쁜 사람에게 맞거나 물건 또는 돈을 빼앗겼을 때	5 (3.5)
	계	142(100.0)

평균 13시 50분에 학교를 마치기 때문에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취업모의 평균 귀가시간이 18~19시인 경우 적어도 4시간 이상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 아동의 59.9%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과후 혼자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자기보호 아동 역시 과반수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인해 방과 후 귀가시간이 약간 늦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비추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것은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5) 자기보호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어려웠던 상황

자기보호 아동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나 성인이 없을 때 자기보호 아동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1가지를 응답하게 하였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가 21.8%, '갑자기 필요한 것을 찾거나 사야 할 때'가 14.8%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율은 낮았지만 '나쁜 사람에게 맞거나 물건 또는 돈을 빼앗겼을 때'가 3.5%로 나타나서 자기보호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각종 안전사항이나 위급한 상황시 대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들은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결과 각 상황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보고들이 나온바 있다(이재연,

강성희, 1992; Peterson, 1989). 따라서 자녀가 혼자 있을 때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불안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성별,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이었다. 그러나 불안은 아동의 학년과 부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수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아의 전체 불안 수준이 남아 전체의 불안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 연구들(김명숙 등, 1997;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Galambos & Garbarino, 1985; Reynolds & Richmond, 1978; Zill,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모학력에 따른 불안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에 비해 아동이 느끼는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불안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들(강병기, 1990; 최경순, 정현희, 1996; Halpern, 1992; Long & Long, 1982)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변인	구 분	N (%)	불안			외로움			자아유능감		
			M	SD	D	M	SD	D	M	SD	D
학년	2학년	207 (47.4)	10.42	5.74		5.54	2.62		18.59	4.14	
	3학년	230 (52.6)	10.35	5.83		4.77	3.08		18.86	4.31	
	t값			.12		2.79**			-65		
성별	남	230 (52.6)	8.85	5.25		5.29	2.90		18.56	4.25	
	여	207 (47.4)	12.09	5.88		4.97	2.88		18.92	4.21	
	t값			-6.08***		1.17			-89		
부학력	중졸 이하	22 (5.0)	10.14	5.85		4.32	3.15		19.68	5.89	
	고 졸	238 (54.5)	10.78	5.92		5.41	2.82		18.49	4.00	
	대 졸	177 (40.5)	9.89	5.59		4.89	2.94		18.94	4.30	
	F값			1.21		2.59			1.14		
모학력	중졸 이하	39 (8.9)	11.23	5.82	B	4.97	2.85		19.00	5.04	
	고 졸	262 (60.0)	10.83	5.88	AB	5.20	2.89		18.37	4.21	
	대 졸	136 (31.1)	9.27	5.45	A	5.07	2.93		19.36	3.96	
	F값			3.79*		.16			2.58		
부직업	단순노동직	19 (4.3)	10.68	4.54	B	5.47	2.56		19.15	5.10	
	피고용기술직	62 (14.2)	11.77	5.74	B	5.33	3.13		18.37	4.19	
	자영상공업	93 (21.3)	11.27	6.26	B	5.01	3.05		18.81	4.26	
	사무직 및 기술직	246 (56.3)	9.88	5.58	AB	5.19	2.84		18.69	4.14	
	전문직 및 관리직	17 (3.9)	7.41	5.85	A	4.05	2.19		19.70	4.76	
	F값			3.11*		.79			.40		
모직업	단순노동직	130(29.7)	10.20	5.51	AB	5.01	3.04		18.62	4.21	
	피고용기술직	40(9.2)	12.35	5.17	B	6.35	2.94		18.15	4.10	
	자영상공업	150(34.3)	10.98	5.94	AB	4.96	2.93		18.73	4.33	
	사무직 및 기술직	99(22.7)	9.19	5.77	A	5.22	2.65		18.99	4.31	
	전문직 및 관리직	18(4.1)	9.23	6.48	A	4.35	1.99		19.41	3.57	
	F값			2.87*		2.28			.41		

*p<.05, **p<.01, ***p<.00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아동의 학년으로 나타났다(p<.01). 2학년의 경우 3학년 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은 집단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므로 학년이 어린 아동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 변인인 불안과 자아유능감에서는 학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아유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하위변

인 중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인 불안, 외로움, 자아유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

결과들을 살펴보면,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심리

〈표 8〉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복지		불안			외로움			자아유능감		
구분	N	M	SD	D	M	SD	D	M	SD	D
보호형태										
자기보호	142	10.33	5.56		5.60	2.99	A	17.86	4.60	B
성인보호	187	10.56	6.05		4.81	2.74	B	19.14	4.11	A
방과후 시설보호	108	10.14	5.63		5.09	2.87	AB	19.17	3.77	A
F 값			.18			3.03*			4.52**	

*p<.05 **p<.01

적 복지의 한 변인인 아동의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불안 및 긴장 등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는 정서적 불안정에 있어서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과 자기보호 아동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김주현(1995)의 연구와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간의 생활적응을 비교했을 때 불안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김명숙과 정영숙(1997)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제시된 연구결과와 종합해 볼 때,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직업적 지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방과후 보호형태 자체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불안을 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의 수준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방과후 시간에 어떤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아동의 외로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자기보호 아동의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로움 수준은 성인보호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더 높은 외로움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들(장영은, 1998; Dichtel, 1986; Long & Long, 1983; Zill, 1983)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방과 후 시설보호에 참여한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 시설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일수록 또래관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된 Posner와 Vandell(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선정된 방과후 시설들의 질이 대체로 열악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인과 아동과의 질적 관계형성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방과후 보호형태별 자아유능감의 수준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1),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의 자아유능감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보호 아동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유능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오은숙, 2000; 장영은, 1998; Halpern, 1992)과 일치한다. 성인보호와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보호 아동보다 자아유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및 성인보호)에 따른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과 후 시설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를 알아본 결과, 방과 후 시간 활용에서는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혼자서 집에 있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시 기본상태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허전하고 쓸쓸하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등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방과 후 성인이 없을 때 더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한명희, 1991; Halpern, 1992; Long & Long, 1981; Zill, 1983)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의 보호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대처해야 할 위급 상황 및 막연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는 자기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과 불안한 정서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의 생활실태를 알아본 결과, 방과후 혼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59.9%), 4시간 이상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경우가 2/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성인이 없을 때 자기보호 아동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으로 '갑자기 몸이 아플 때(50.0%)',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21.8%)', '갑자기 필요한 것을 찾거나 사야 할 때(14.8%)'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량이 많고 그만큼 요구도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성인 부재시 힘든 상황은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몇시간 정도 혼자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막연한 상황에 대해 불안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위협에 대처하는 기술도 부족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 부재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해야할 지를 사전에 미리 지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불안에서만 성별, 부모의 직업 및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로움

에서는 아동의 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아유능감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안정도가 다르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들(김명숙 등, 1997;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Galambos & Garbarino, 1985; Reynolds & Richmond, 197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자아유능감과 외로움보다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 측면 중 불안에서 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와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이 가장 높고 자아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에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아동에게 외로움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부정적 측면의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아유능감은 성인보호와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김주현, 1995; 장영은, 1998; Halpern, 1992; Posner & Vandell, 1994)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동 혼자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 자아유능감의 발달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방과후 아동의 숙제 및 학업을 도와주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는 방과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더불어 자기보호 아동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비해 방과후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자기보호를 할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저학년 아동의 경우 혼자 있음으로 해서 직면할 수 있는 안전과 보호 및 정서적인 문제의 발

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방과후 시간에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안전 및 건강을 돌보아주는 체계적인 방과후 시설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방과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학령기 아동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보호는 집안 상황에 의해 우발적으로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양육대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부모들이 아동의 자기보호를 선택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작업과 예비연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아동이 느끼는 불안에는 성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아들에게보다는 딸에게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강조하는 일반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위험을 강조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언행은 삼가해야 할 것이며, 가정과 학교, 사회의 협력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위험에 느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아유능감의 지각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보호형태에 비해 심리적 복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후 생활실태 조사에서 어려움을 많이 보고한 동시에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관련된 심리적 복지에서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기보호 아동에게 방과후 시설 등을 확대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호는 또래와의 관계확장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아에 대한 상을 발달시켜 가는 시기에 자아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학습성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호는 학원 등을 이동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동의 숙제 및 학업을 전문적으로 돌보아주는 성인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의 자아유능감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의 폭이 확대되는 시기에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제한되었을 수 있는 자기보호 아동들에게 다양한 또래관계 및 성인

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교에서의 보호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기보호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 방과후 아동보호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아동이 방과후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 학습지도보다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원만한 성격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호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동의 요구를 기초로 발달단계별, 시간대별, 지역별, 이용형태별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개발하고 확대시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과후 아동보호가 단순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보충학습이나 특별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전환시키고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함을 인식시켜 학교의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과 방학 때에도 특별행사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및 사회교육공간으로 학교가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호는 학교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시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는데, 대부분이 질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서 방과후 시설의 질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후 시설을 선정하여 방과후 시설의 질적인 면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변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 문헌

- 강병기(1990). 자보아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자보기간에 따른 지능, 성격, 학업성취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 구은미(1989). 자기보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외동

- 재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권민균(2001).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조사: 마산과 창원지역 저소득층과 중류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7), 1-19.
- 김경혜(1998). **중산층 맞벌이가족의 자녀보육실태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김명숙, 정영숙(1997). 방과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보육학*, 9, 183-196.
- 김옥천(1993). **자기보호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김재인(1995).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 「방과후 아이들: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어린이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3-29.
-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오은숙(2000). **자기보호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 육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 91-113.
- 이남기, 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 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이재연, 강성희(1992).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 *숙명여대 논문집*, 33, 313-323.
- 이희진(1989).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임선심(1998). **초등 1, 2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시행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의 차이**. 서울대 석사논문.
- 최경순, 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 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9(2), 107-117.
- 최영애(1998).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 학회지*, 29(3), 691-701.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통계청(2001). **경제활동연구연보**.
- 한국어린이보호회(1992). **국민학교 방과후 생활실태 조사**. 6-7.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 <http://www.kwdi.re.kr/>
-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Asher, S. B., Hymel, S., Renshaw, P.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Cowen, E.(1994).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149-180.
- Dichtel, J.M.(1986). *The primary latchkey chil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Galambos, N.L. & Garbarino, J.(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of inner city children :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a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Long, T.J. & Long,L.(1981). *Latchkey children*. Urbana, IL: ERIC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Posner, J. & Vandell, D.(1994). Low-income children after school care :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eynold, C. R. & Richmond, B. O.(1978). What I think and feel :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Abnormal Child Psychological*, 6, 271-280.
- Vandell, D.L.& Corasanti, M.A.(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 after 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68-177.

Zill, N.(1983). *American children : Happy, health and insecure*. New York : Doubleday Anchor Pr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및 성인보호)에 따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보호 아동은 42.3%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이 2/3이상으로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무섭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등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불안에서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직업,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외로움에서는 학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